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7.21~2015.7.2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어떻게 살 것인가(설정스님의인생법문)	설정,박원자	나무를심는사람들
2	알기쉬운 쏙쏙 능엄경	현담스님	도서출판선
3	불교입문-도표로읽는	이자랑	민족사
4	스님의 비밀	자현/석공	(주)조계종출판사
5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6	틱낫한기도의힘	틱낫한	불광출판사
7	법륜스님의행복	법륜	나무의마음
8	미산스님초기경전강의(개정판_양장본)	미산	불광출판사
9	최초의 불교는 어떠했을까-원시불교	나카무라하지메원영	문예출판사
10	어라 그런대로 안녕하네	지찬스님	들녘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본래 자기 본성이 바로 진실한 부처”



禪으로 읽는 증도가 하

김태완 지음
침묵의 향기 펴냄
2만 2천원

깨달음의 진수를 잘 밝혀 놓았으므로 예로부터 선종의 고전으로서 널리 애송된 영가현각 스님의 ‘증도가(證道歌)’ 267구를 무심선원 김태완 선원장이 깨달음의 자리를 곧장 가리키는 살아 있는 언어로 설법했다. 〈禪으로 읽는 증도가〉(상권)에 이은 ‘김태완 선원장 설법 시리즈’의 일곱 번째 책이다. 상, 하권 중 상권은 지난달에 먼저 출간되었고, 하권은 이번에 출간되었다.

조사선(祖師禪) 전문가이자 실제 눈을 뜬 공부 체험을 바탕으로 수행자들을 지도하는 김태완 선원장 설법은 직지인심(直指人心)이라는 선불교의 정신에 충실하게 곧바로 ‘마음’을 가리킨다. 해탈의 체험을 한 뒤에 계속 공부해 가는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들도 많이 담겨 있어, 초심자뿐 아니라 공부가 진전된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설법 책이다. 중국 당나라 때 선승인 영가현각 선사는 여덟 살에 출가해 경전을 두루 공부했고, 천태지관 법문에 정통했으며, 〈유마경〉을 보다가 마음의 근본을 깨달았다. 육조혜능의 제자 현책의 권유로 혜능 대사를

267구로 이뤄진 증도가… 깨달음 진수 밝혀
중국 당나라 선승인 영가현각 선사가 지음
생생한 언어로 해설, ‘김태완 시리즈’ 7번째

찾아가 문답해 인가 받았다. 그날 혜능 대사의 권고로 하룻밤 묵었는데, 이 때문에 일숙각(一宿覺)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 후 ‘증도가(證道歌)’를 지었으며, 267구로 이루어진 증도가는 깨달음의 진수를 잘 밝혀 놓았으므로 예로부터 선종의 고전으로서 널리 애송되었다.

이 책은 당장 눈앞의 법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 주는 법문들뿐 아니라, 한 번 해탈의 체험을 한 사람이 그 뒤에 공부해 나아가는 것에 대한 가르침도 많이 담겨 있다. 그 때문에 평소에는 듣기 어려운 깊이 있는 가르침들도 접할 수 있어, 초심자뿐 아니라 공부가 어느 정도 진전된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설법 책이다. 중국 당나라 때 선승인 영가현각 선사는 여덟 살에 출가해 경전을 두루 공부했고, 천태지관 법문에 정통했으며, 〈유마경〉을 보다가 마음의 근본을 깨달았다. 육조혜능의 제자 현책의 권유로 혜능 대사를 찾아가 문답해 인가 받았다. 그날 혜능 대사의 권고로 하룻밤 묵었는데, 이 때문에 일숙각(一宿覺)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 후 ‘증도가(證道歌)’를 지었으며, 267구로 이루어진 증도가는 깨달음의 진수를 잘 밝혀 놓았으므로 예로부터 선종의 고전으로서 널리 애송되었다.

이 책은 당장 눈앞의 법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 주는 법문들뿐 아니라, 한 번 해탈의 체험을 한 사람이 그 뒤에 공부해 나아가는 것에 대한 가르침도 많이 담겨 있다. 그 때문에 평소에는 듣기 어려운 깊이 있는 가르침들도 접할 수 있어, 초심자뿐 아니라 공부가 어느 정도 진전된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설법 책이다. 흔히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한다. 여기서 깨달음이란 진리를 깨닫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모든 불만족스러움과 번뇌의 감옥서 온전히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다. 그렇다면 모든 부처와 조사, 선사들이 발견한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 〈증도가〉의 앞머리에서 영가현각 스님은 말한다. “법신을 깨달으면 한 물건도 없고 본래 타고난 자기의 본성이 바로 진실한 부처이다”라고.

구도인들이 찾고자 하는 그 무엇, 이름하여 ‘부처’라 하고 ‘도(道)’라는 진리는 사실 우리의 ‘본래 타고난 본성’이란 것이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이 바로 본래 부처이며, 늘 변함없는 진리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진리이며 자기 본성이므로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이며, 자기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며, 얻거나 잃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며,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다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선(禪)의 요체가 ‘직지인심 견성성불’인 것은 이 때문이다. 자기의 본성 즉 ‘마음’이 본래 부처이므로 그것을 곧장 가리켜 깨닫게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므로 선사(禪師)들이 하는 일이란 늘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마음을 계속 가리켜 준다. 임제 스님의 할도, 덕산 스님의 방도, 수많은 선문답과 설법들도 실은 모두가 ‘이것’ 하나를 가리켜서 깨닫게 하려는 방편이었다. 조사선을 되살려 현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무심선원 김태완 선원장의 설법도 역시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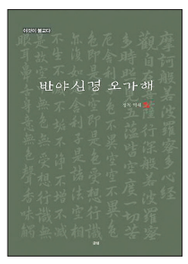
“그럼 (손가락을 세우며) 이건 뭐냐? 아무 말할 게 없어요. 이건 아무런 정해진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손가락을 세우며) 여기서 말하고, 모든 것이 (손가락을 세우며) 여기서 나오고, 모든 것이 (손가락을 세우며) 여기서 나타나지만, 이것 자체는 ‘뭐다’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온 천지가 이것이어서 어디를 보든지 이것 하나가 확인되지만, 이것 자체는 노란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에요. 차가운 것도 아니고 따뜻한 것도 아니고, 향기로운 냄새도 아니고 악취가 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손을 흔들어 올리며) 이것 하나가 분명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선(禪)에서는 수행을 말하지 않으며, 기록에 따르면 2조 혜가부터 대개 설법을 듣다가 말끝에 깨달았다. 그것이 원래 선의 전통적인 방법이었다. 모든 유위적인 수행을 멀리하고, 선지식의 말을 잘 듣다가 문득 알아차리는 것이다. 설령 한번 해탈의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생각을 믿고 생각에 끌려 다니던 습성이 워낙 뿌리 깊기 때문에 꾸준히 설법을 들으며 안목을 확고히 해야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말한다. “하여튼 공부에서 가장 첫 번째 관문은 이것을 한 번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 관문은 생각을 조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있다 해도 자꾸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생각조차도 여법하게 돌아가도록 해서 법을 보는 안목이 확실하게 자리 잡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법하게 할 수 있고 무슨 말을 듣더라도 그걸 날카롭게 볼 수 있게 여법해져야 합니다.”

김주일 기자

‘자리이타 보살도’ 가르침이 핵심



반야심경 오가해

정목스님 지음
금샘 펴냄
2만원

〈반야심경〉은 구마라집의 번역본, 현장의 번역본, 반야와 이언의 공동번역본이 대표적이다. 이 경의 해설서는 원측의 〈불설반야바라밀다심경찬〉이 가장 뛰어나고, 원효의 〈대혜도경종요〉는 6백부 반야경의 근본 사상과 요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역작이다. 〈반야심경〉은 연기의 세계관에 의한 세계와 인간의 존재방식, 모든 법에 대한 바른 지혜, 부처님의 지혜와 그 가치관의 실현에 대해 명료히 밝혔다. 그것은 오온과 모든 법의 공성을 깨달아 묘관찰지를 얻고 발심해 자리이타 보살도를 실천하며 위없는 보리를 증득하는 가르침을 보였다. 실로 ‘이것이 불교다’라고 말해도 조금도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반야심경 오가해(五家解)〉는 삼가(三家 : 구마라집, 현장, 반야와 이언)의 번역본을 한글로 번역하고, 이가(二家 : 원측과 원효)의 논서를 중심으로 관조반야와 염불수행을 비교하며 해설했다.

〈반야심경 오가해(五家解)〉는 삼가(三家) 번역본과 이가(二家 : 원측과 원효)의 논서를 해설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첫째, 반야와 이언의 공동번역본에 의해 서분, 정종분, 유통분의 삼분과(三分科)를 따라 풀었다. 정종분은 제 1장 관하는 지혜, 제 2장 보살이 관할 경계, 제3장 얻을 바의 과보로 구성됐다. 이 정종분은 구마라집과 현장의 번역본을 함께 실어 뛰어난 조사들의 번역을 한 눈에 보고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정종분 해설은 원측(613~696, 신라)이 현장의 번역본을 저본으로 삼아 해설한 〈불설반야바라밀다심경찬〉을 인용해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했다. 셋째, 원효의 〈대혜도경종요〉 〈무량수경종요〉 〈아미타경소〉 등을 인용해 관조반야와 염불수행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엮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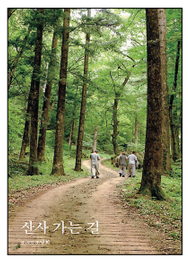
모든 해설은 불자가 어떤 수행문을 선택해 닦든지 그 귀결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대승의 정신을 실천하는 데 있음을 밝히려고 노력했다. 그것이 곧 지혜의 완성과 다 함께 안락한 삶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원측은 이 경의 뜻은 모든 법

다섯명의 금강경해설서 모아 편찬
‘상구보리 하화중생’ 밝히는데 귀결

의 공성을 깨달아 대승의 근본정신인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하는 데 있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와 같이 공사상을 자리이타의 실천철학으로 해설하고 삶의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은 대승의 선지식만이 가능한 일이다. 원측과 원효는 모두 발심, 부처님의 네 가지 지혜, 삼신과 정토를 강조하였다. 이들에 대하여 원측보다 원효가 더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밝혔으므로 원효의 『무량수경종요』에 의해 이 점들을 보충하여 해설하였다. 또한 자각의 문인 깊은 관조반야를 실현할 수 없는 대부분의 불자들에게 원효가 권한 자비광명의 문인 염불수행의 요체를 보였다.

김주일 기자

일상의 삶 속에서 새롭게 바라본 산사



산사 가는길

조낭희 글 사진
눈빛 펴냄
1만 5천원

수필가인 저자가 전국 사찰 50곳을 순례하며 느낀 순간의 감상을 적은 답사기와 직접 찍은 컬러 사진들을 함께 수록한 책이다. 단순 사찰 정보나 여행기가 아니라 산사에 들어 자기 자신을 찾아보는 마음의 책이다.

초보승인줄 모르고 스님께 불상 설명을 청했다가 오히려 무안을 당한 김천 직지사, 잦은 야근으로 힘들어 하는 직장생활 새내기 딸을 데리고 찾아간 완주 송광사, 삶의 버팀목이 되어준 남편이라는 존재와 그 자리의 중요성을 체득하게 한 여수 향일암 등 일상의 삶 속에서 산사를 새롭게 빚어낸다.

스님들이 모여 불도를 수행하는 곳을 도량이라고 하듯이, 저자에게 산사는 여행의 목적지가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산사의 대웅전과 불상, 불탑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부처님을 만난다. 선암사 무우전 돌담에 핀 홍매화, 통영 비진도 비진암의 동백꽃, 장성 백양사의 고불매 등에서도 불심을 마주한다. 욕망과 물질에 매달려 삶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반문하며 산사가 베푸는 가르침에 삼배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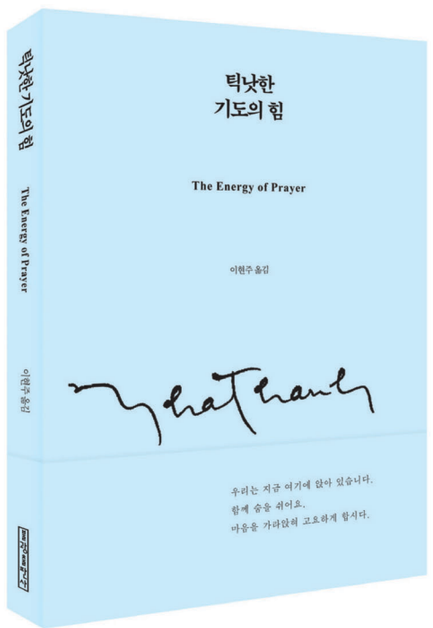
천주교 신자인 저자는 묵주와 염주가 하나일 수 밖에 없다는 깨달음을 산사서 얻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오늘도 저자는 번뇌와 탐진치를 털어내며 마음의 눈으로 산사 어디쯤 오르고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그대를 바꾸고
그대를 살리고
그대를 근원과 이어 주는

틱낫한 스님의 정성 가득한 기도 이야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함께 숨을 쉬어요.
마음을 가라앉혀 고요하게 합시다.”



틱낫한 기도의 힘
The Energy of Prayer
이현주 옮김
우리는 지금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함께 숨을 쉬어요. 마음을 가라앉혀 고요하게 합시다.

용기와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고
휴식과 회복이 이뤄지고
삶이 깊어지는
참된 기도의 세계로 안내한다

틱낫한
기도의 힘
The Energy of Prayer

이현주 옮김 | 208쪽 | 13,000원

무엇이 삶을 예술로 만드는가 일상을 창조적 순간들로 경험하는 기술

삶과 일과 예술이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창조성에 관한 이야기



무엇이 삶을 예술로 만드는가
일상을 창조적 순간들로 경험하는 기술
DIE KUNST EIN KREATIVES LEBEN ZU FÜHREN

프랑크 베르츠바흐 지음 | 정지인 옮김 | 256쪽 | 13,8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홈페이지 www.bulkwang.co.kr